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 후원전달식 행사 열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이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에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의 후원금은 공사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직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하여 형성된 ‘행복나눔기금’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 30명

을 대상으로 6월과 8월에 걸쳐 2그룹으로 나눠 출산전 준비 및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8월 24일에는 비대면방식으로 후원금 및 베이비키트 전달식과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행

복나눔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예비 산모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예비 산모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정해 기자
sdjebo@naver.com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통번역가 양성교육과정 수료식 및 취업기초소양교육 진행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월 16일, 3월부터 진행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통번역가 양성교육과정>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상반기동안 열심히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를 격려하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어떤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L씨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이었지만 교육을 진행한 강사님께서 결혼이민자여서 결혼이민자 수준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어 좋았다. 전문성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 덕분에 교육 이후 TV에서 뉴스를 볼 때 전보다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허브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취업교육은 법정 통번역인 양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총 40회기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14명 중 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자 중 9명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스킬, 직장생활 예절 등을 주제로 한 취업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수강생들이 교육수료에 그치지 않고 취업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소혜련 기자
shryun210@naver.com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슈퍼비전 실시

지난 22일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상담사 및 객원상담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찬 슈퍼바이저(수원 카톨릭대)를 초청해 22년 제1차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센터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전문상담사 및 객원상담사의 상담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동료들의 객관적인 평가나 조언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서 다문화상담사례의 고유한 심리·사회적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강경수 기자
sdjebo@naver.com